

‘Bibliography’의 語彙와 ‘中国在來의 目錄學’ — 특히 阿片戰爭以前을 中心으로 —

沈 隅 俊*

〈차 례〉

- | | |
|--|--|
| <p>I. 緒 言</p> <p>II. bibliography의 概念에 대한 西洋에서의 論難</p> <p style="padding-left: 2em;">A. 時期와 機能面으로 본 語彙의 概念</p> <p style="padding-left: 2em;">B. 研究傾向에서 본 bibliography</p> <p>III. 中国在來의 目錄學과 intellectual bibliography</p> | <p>A. 阿片戰爭以前의 目錄學과 intellectual bibliography</p> <p>B. 阿片戰爭以前의 目錄學과 physical bibliography</p> <p>C. 歷代文獻에 나타난 中国目錄學의 編成과 bibliography</p> <p>IV. 結 言</p> |
|--|--|

1. 緒 言

約 20個 星霜前 日本의 書誌學者 長澤規矩也씨는 일찌기 그의 著「書誌學序說」속에서 “書誌學과 가장 가까운 內容을 가진 學問으로서는 清儒 王鳴盛(康熙61—嘉慶2)이 主張한 이른바 ‘目錄學’이 아닌가”¹⁾ 하는 要旨을 示唆한 바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西洋에서 일컫는 bibliography를 “書誌學”이라고 誤해 놓고 東洋에서의 ‘在來의 目錄學’과 對比시켜 推理된 持論인 듯 하다. 그러나 主題가 다른 問題를 다루는 속에서 修飾된 論及이어서 그의 論難은 寡聞의 탓인지 별로 없는 것 같다. 筆者는 이 問題를 좀더 進展시키는 意味에서 西洋에서 일컫는 이른바 ‘bibliography’란 語彙의 論議와 그 範疇를 살펴보고, 東洋에서 일컫는 이른바 ‘目錄學’ 특히 그 중에서도 中国에서 西洋文物이 本格的으로 交流되기 前인 阿片戰爭以前의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 副教授

1) 王鳴盛의 主張은 目錄學은 學問하는데 가장 必要한 것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目錄學을 거쳐서야 만이 모든 學問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이를 書誌學과 接近시킨 것은 長澤規矩也이다. <長澤規矩也, 書誌學序說, (東京: 吉川弘文館, 昭和40) P. 7> 그러나 그는 西洋에서의 bibliography의 性格이나 東洋에서의 目錄學의 性格을 對比시킨 具體的인 論을 展開시킨 바는 없다.

中国目錄學의 性格을 對比시켜 봄으로써 그 語彙의 概念과 範圍, 그리고 推移에 대해서 一斷面이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II. Bibliography의 概念에 대한 西洋에서의 論議

A. 時代와 機能面으로 본 語彙의 概念

西洋에서는 圖書를 対象으로 研究된 學問이 일찌기 18世紀부터 있었으며²⁾ 그 後의 變遷된 事項은 時期로 区分해 볼때 一般化되지 않았던 時代와 公式적으로 支持를 받았던 時代로 兩分할 수 있었다 하였다. 前者의 경우는 지금 우리들이 一般的으로 부르고 있는 'bibliography'를 지금과 같이 부르지 않고 '圖書의 目錄'(a list of book)³⁾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圖書의 目錄을 編纂하는 사람을 'bibliographer'라고 하고, 이들을 "純眞하게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책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여 自己의 思想이나 比評이 介入되지 않은 純粹한 代書人(Scrivener)이나 '책을 베끼는 사람'(Copyist)로 알려져 있다. 1756년부터 1761年 사이만 하더라도 책의 供給이 需要에 미치지 못하고 나오는 책이란 著者名이 없었고 流布本이란 手稿本뿐이었던 時代이니만치 當時의 bibliographer라고 하는 사람들의 役割은 기껏해야 筆寫生(Copysist)⁴⁾이 아니면 代書人(Scrivener)의 기능을 능가치 못했으니 이 때의 bibliographer는 지금의 現代的인 概念에서는 理解가 가지 못할 程度의 工員의 存在였던 時代다. 18世紀末

2) 語彙가 '책을 쓰는 것'에서 '책에 관해서 쓰는 것'으로 變化가 이룩된 것은 18世紀에 佛蘭西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Pollard는 믿고 있다. 《Stokes, Roy, The Function of Bibliography (London: André Deutsch, 1969) P. 12》

3) 이 語彙는 大概의 경우 '圖書의 目錄'이라는 便宜한 概念을 傳達하는데 使用된다. 이와같이 아주 制限된 뜻으로 그 語彙를 完璧한 書誌的 意味로 쓰기 보다는 選定 및 範圍에 관계없이 圖書의 目錄을 다루는데 잘못 適用되고 있는 일이 흔하다. 《ibid. P. 11》

4) Bibliography라고 한 말은 Johnson의 말로서 辭典編纂者에게 命名된 冷待의 紐앙스를 풍기는 語彙이다. 그는 이와같이 論及한 까닭이 語源으로는 "책을 쓰는 것"이라는 데서 緣由된 것으로 보이나 그 語彙가 適切한 表現은 아니라고 指適되기도 했다. 《loc. cit.》

5) '책을 쓰는 것'이라는 語彙는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 陳腐한 것으로 指摘되었으며, 最初에 이와같은 語彙가 쓰여진 것은 1678年 J. Phillipps의 The New World of English Words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오래된 것으로는 1656년에 Thomas Blount(The Academic of Eloquence 2版)에 의해서 '책을 쓰는 사람'(writer of books)即 代書人(scrivener)의 뜻으로 記錄되어 있다. 《ibid. p. 11, 12》

6) 17世紀 中葉부터 18世紀 中葉까지는 Bibliographer라는 말이 通用되었으며 그 役割이 기껏해야 筆寫生이나 代書人 程度를 벗어나지 못했다. 《ibid. p. 12》

業에 이르러서야 책의 蒐集에도 關心을 두었고 佛蘭西에서는 “책을 쓰는 것”(a writing of books)으로부터 “책에 관해서 쓰는 것”(a writing about books)으로 研究方向을 轉換⁷⁾ 시키었던 것이 비로소 學으로서의 胎動期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後者の 경우는 機能面에서 좀 進展을 보아 왔던 때다. 즉, bibliographer를 1763年以後 數 10年 사이에는 ‘圖書에 關해 造詣가 있는 사람’ ‘文獻士’ ‘印刷術과 關聯이 있는 諸般狀況에 대하여 特別히 研究한 사람’⁸⁾을 指稱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bibliographer라는 人稱은 불리우지 아니하고 書籍商(bibliology)⁹⁾라는 學名이 나왔으며 때로는 책의 知識이나 學問을 이야기하기 위해 booklore라는 말까지도 (한때 支持는 받지 못했지만) 나오기도 했던 것이다. 그것은 大英百科辭典 11版에 収録된 A. W. Pollard의 寄稿 bibliography 및 bibliology에서 그 內容을 알 수 있다. bibliology라는 말은 Robert Southey의 創言이지만 그 뒤 1921年과 1932年 兩次에 걸쳐 Walter Greg가 書誌學會 演說에서 “bibliology가 bibliography보다는 正確하게 主題研究를 定義하고는 있으나 bibliology로 다시 고쳐질 수 없는 것은 매우 遺憾된 일”이라고 論及한 語彙는 描写를 통해 보면 그 裏面에는 bibliography라는 語彙가 이미 굳어질대로 굳어진 이른바 習用된 語彙였기 때문에 그 語彙가 꼭 概念에 맞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쳐서 bibliology라는 말로는 代替시키지 못했던 것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그 當時의 趨勢는 bibliography가 이와 같이 마땅치 않다고 한 主要原因을 살펴보면 ‘圖書에 관해서 쓰는 글이 거의 모두가 根本적으로

7) 註2 參看.

8) ‘책을 쓰는’說에서 ‘책에 관해서 쓰는’說로 轉換시키었다는 Pollard의 說은 Roy Stokes가 說明한 것을 보면 그 動機가 圖書蒐集의 움직임이 刺戟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굳어진 Bibliographer라는 語彙가 通用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그 機能面에서 變質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것이 卽 Peignot의 主張인 “Bibliographer를 圖書의 知識, 文獻士 그라고 印刷術과 關聯되는 諸般狀況에 대하여 特別히 關心을 두고 研究하는 사람”으로 木박은 것이다. 《原典: Peignot, Etienne Gabriel, Dictionnaire Raisonné de Bibliologie. 3 vols. Paris, 1802-4, 紹介: Stokes Roy, loc. cit.》

9) A. W. Pollard가 Encyclopaedia Britannica 11版에 寄稿한 主題가 Bibliography 및 Bibliology인데 1912年과 1932년에 Walter Greg는 書誌學會 演說에서 Bibliography의 概念보다 Bibliology의 概念이 正確성이 있으나 Bibliography의 語彙가 이미 굳어졌으므로 Bibliology로는 고칠 수 없는 것(Stokes Roy, op. cit. p. 13)이라고 한 바 있다.

科學的이라기 보다는 感情的'인 것에 있었다. 그 때에는 'booklore'라는 語彙가 나올 程度로 時代的인 背景과 研究領域이 至極히 限定되었으며 심지어는 稀貴本이나 筆寫本만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愛書學'(bibliophily)¹⁰⁾이 流行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심한 것은 Iseac Disraeli같은 사람은 'bibliognost'라는 새로운 語彙를 만들어 냈을 程度로 熱狂的이었다. 어떻든 이와 같이 오늘날 부르고 있는 bibliography의 語彙는 수많은 學者들의 論難을 물리치고 이미 굳어져 버린 用語로 認定을 받아왔으며 bibliography라는 語彙와 兼用되어 온 것이 19世紀以前의 學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bibliophily는 研究內容이 當時의 事情에 適宜하다고는 하였지만 이미 굳어져 버린 bibliography라는 말의 有用性を 圧倒的으로 制壓할 수는 없었으며 意味는 여하튼 工人的 bibliography로부터 出發한 이 用語가 20世紀 中葉까지 굳어져 내려왔던 事實은 否認할 수 없게 되어 있다.

要컨데, 初期의 形狀은 Scrivener나 Copyist의 役割을 할 때이니만치 Bibliography라는 用語가 通用되지 않았었고 學名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a writing of books 時代를 거쳐 a writing about books 時代에 들어와서는 bibliography, booklore, bibliognost, bibliophily라는 學名이 나오기는 했으나 그 前에 이미 bibliographer라고 불려오던 習性和 惰性에서 bibliography가 通用되었다 하겠다. 그러나 이 用語를 물리치지 못한 수많은 用語들은 전혀 無意味한 것이었든가 그렇지 않았었다. 오히려 bibliography보다는 더 時代性を 描写했고 機能面으로 볼 때 그때 그때마다 適宜한 用語였지만 이미 bibliography로 굳어진 用語는 쉽사리 물리치지 못했다. 따라서 傳來되고 있는 bibliography라는 用語가 지닌 語彙의 紐彙는 그때마다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B. 研究傾向에서 본 Bibliography

1945年 以後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語彙가 지니고 있는 Bibliography의 意味는 그 研究面에서 볼 때 두가지가 顯著하게 論難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는 圖書의 形質的인 面을 對象으로 研究하는 傾向

10) Walter Greg 卿은 Bibliography보다는 "booklore"라는 語彙가 適宜하나 當時 Bibliophily라는 말도 一般的으로 쓰여졌다. (loc. cit.)

이었고 다른 하나는 內容만을 獨立시켜 研究해야 한다는 論이었다. 前者의 경우는 Walter Greg卿의 主張으로서 그는 自己가 “만일 「創世紀」나 「오딧세이」나 「The Laws of Ecclesiastical Polity」나 「種의 起源」 또는 「The bad child's Book of Beasts」를 研究한다고 할때 이런 研究는 결코 Bibliography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을 것”¹¹⁾이라고 한 것은 圖書를 物質的인 面만을 對象으로 研究하여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Greg卿의 發表가 있기 前에 이미 1911年 A. E. Hausman도 “學者는 Linnacus나 Newton이 시골의 아름다움이나 별이 많은 하늘에 關心이 없는 것 같이 그가 다루는 文獻의 功過에 대하여 關心이 없다”¹²⁾는 論도 Greg卿의 形質的 研究와 別差가 없다. 이와 같이 본다면 對象은 音盤, 洞窟壁畫, baked clay tablet, papyrus rolls, 皮紙(Vellum), 羊皮紙(Parchment), Papermanuscripts, 活版(Movable type printing) 등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것¹³⁾이다. Greg卿의 形質推究論은 Copinger의 “文獻調査의 文法”¹⁴⁾ 格言을 復活시킨 論이며, 보다 具體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版과 數千의 寫本 그리고 現存치 않는 몇 原稿사이 에 생긴 複雜한 關係를 究明해 내는 것”이라 한데서 原文과의 對比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Greg의 論은 descriptive bibliography¹⁵⁾를 力說한 것이다.

다음으로 Fredson Owens의 主論중 一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는 圖書製作의 物理的인 過程의 細部는 復元해 내는 作業으로 보고 特定 寫本의 物理的인 特性이 어떤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를 調査해야 한다고¹⁶⁾

11) Ibid. p. 14.

12) Ibid. p. 15.

13) Ibid. p. 16.

14) Ibid. p. 16.

15) Issue와 版의 여러 種類사이 에 일어나는 問題를 識別해내기 위하여 板의 印刷事情과 原本의 歷史를 說明하고 特히 原本에 대한 特徵을 記述하는 것이다. 이것은 Bowers의 概念規定이다. (ibid. p. 151) 그러나 이의 記述은 어떤 規程이 있는 것이 아니고 經驗의 濾過乃至 列拳書誌보다는 形態面을 보다 広範圍하게 다룬다. (ibid. p. 101) 그러나 Bohdan S Wynar는 “技術的으로 理想的인 寫本(ideal copy)이라고 알려진 것을 記述한 것”이라 하였고, Theodore Besterman은 記述方法을 책의 外形에 대해서 研究하는 것이라 하였다. (Bohdan S. Wynar, Introduction to Bibliography and Reference Works (n. p.: Libraries Unlimited, Inc., 1967) (Library science text series) p. 49)

한바 있다. 즉 이것은 analytical bibliography¹⁷⁾ 혹은 critical bibliography를 指稱한 것이다. 이것은 觀點에 따라서는 다른 時代의 圖書가 物理的 特徵을 이루고 있는 事實을 記述하는 descriptive bibliography와 原文과 後刷된 各板의 板本과 刷次를 통해서 傳來된 原文을 比較研究해 내는 textual bibliography의 이 두가지 性格을 內包시키는 傾向도 있고 分離시키는 傾向도 있다.¹⁸⁾

다음으로 또 留意해야 할 것은 物質的 對象을 만들어낸 作業過程을 잘 알 수 없을 때 原稿의 傳達, 印刷의 方法, 他時代의 印刷所運營의 慣例, 出版의 背景, 印刷의 事情, 出版法, 書籍의 販賣 등을 研究해서 發展狀況을 알아냄으로써 本文의 位置를 推定해 내는 historical bibliography¹⁹⁾가 있었으나 그 一部를 차지하고 있던 古文書學(Palaeography)와 파피루스學 즉 古寫本學(papyrology)으로 分離되어 獨立된 學問으로 發展해 나가는 傾向이 없지 않다.²⁰⁾ 以上은 모두 圖書의 形質에 대한 研究傾向이다.

圖書內容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後者의 경우를 보면, Bowers가 大英百科辭典에 投稿한 內容의 一部도 該當된다. 그의 論을 보면 “形式關係가 있는 어떤 體系나 圖書의 參照概要(reference scheme)에 依拠해 目錄을 作成해야 된다”는 것은 enumerative bibliography나 혹은 systematic

16) Bowers는 現代에 있어서 Bibliography라는 語彙를 두가지 面으로 보아 왔는데, 하나는 形式關係가 있는 어떤 體系나 圖書의 參照概要(reference scheme)에 依拠해서 目錄을 作成하는 것이 enumerative(혹은 systematic) bibliography라고 하고, 또 하나는 圖書製作의 物理的인 過程의 細部를 回復시키는 것을 생각하며 實體의인 面을 對象으로하여 圖書를 分析(혹은 批評)하는 것이라 한 바 있다. (ibid. p. 18)

17) Analytical bibliography는 原本(ideal copy)과 다른 點을 찾아내기 위하여 책을 調査하는 것으로서 한 issue 안에 印刷者가 이룩한 實際로 가장 完全한 形態의 책에 關하여 充分한 情報을 提供하게 되는 것이다. (ibid. p. 72)

18) 어떤 批評家는 textual bibliography를 主題分野에 適用하게 된 것은 適切치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Greg에 依하면 圖書는 文獻을 傳達하는 物質的 手段이므로 物質만 緻密하게 研究하면 本文의 沿革은 自然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Roy Stokes는 이에 대하여 內容을 研究對象으로 한다면 textual bibliography보다는 textual studies란 表現이 더욱 알맞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ibid. p. 10) 그러나 이와같이 論及한 Stokes는 本文에 關한 문제(textual problems)보다는 主題에 대한 分析이므로 列舉問題와도 關聯이 있다고 하고 있다. (loc. cit) 現代概念에서는 textual criticism은 ① 原本을 確定지을 目的으로 文獻(literary works)을 研究해야 하고 ② 原本을 精讀하고 分析하는 것을 重點으로 두고 있다.

19) Ibid. p. 19, 20.

20) Ibid. p. 19.

bibliography²¹⁾에 該當되는 條項이다. Lloyd Hibberd의 主張에 따르면 subject bibliographies 보다는 後見的(tutelary)인 格으로 大概의 경우 文獻案内書(literature guide) 보다는 더 包括的인 圖書內容에 關係된 研究가 必要하다. 換言하면 主題가 지니고 있는 圖書의 內容 즉 著者의 展開하려고 하는 理論의 理解面으로 볼때 列挙問題(enumerative problems)가 提起되며 이것을 一般的으로 intellectual bibliography라고 表現하고 있다. Lloyd Hibberd는 이 命名에 대하여 enumerative bibliography 나 혹은 systematic bibliography 같은 두 단어를 카버할 수 있는 用語가 reference bibliography라고 한 일도 있다. 어쨌든 이것은 새로운 資料(典拠)를 調査하고 分類해서 目錄하기까지의 作業(classified list)을 뜻하고 있다. Stephen Gaselee경은 Greg의 圖書의 形質研究의 對象論을 反駁하면서 列挙가 bibliography의 “特別한 部分의 役割을 하는 歷史의 主要性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고, A. W. Pollard는 Gaselee경의 主論에 註釈을 붙여 “한 個의 雨傘” 밑에서 研究할 것을 強調하고 있다. 이 말의 意味에는 學問의 源流를 推究하는 書史學(literary history)도 들듯하고 解題와 提要까지 包含되고 있으며 더 크게 보면 어느 것이 重하고 輕하고의 差는 있을지라도 圖書를 研究對象으로 하는 以上 形質面의 研究와 內容面의 研究가 相互의 不可分離의 關係가 있음을 示唆도 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の 諸論을 재치있게 要略한 者가 Bohdan S. Wynar이며 이를 더 敷衍해서 綜合해 보면 bibliography의 研究範圍가 어느程度 劃定되지 않을까 한다. 筆者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羅列해서 그 範疇를 表示해 보고자 한다.

西洋에서 말하는 bibliography라는 語彙는 以上과 같이 多樣하면서도 그 区分을 大分해 보면 不過 形質面과 知的인 面으로 圖書(資料)를 보고자 하는데 있다. 여기서 특히 注視되고 있는 것은 Greg의 單一形質論과 Bowers의 形質 및 知的인 兩分論이다. 英國系統에서는 本質적으로 Greg

21) 이는 圖書를 하나의 知的 個體로 보는 主題目錄 即 著者, 書名, 批評의 抄錄, 解題類이다.
 (Bohdan S. Wynar, op. cit. p. 55)

表 1. Bibliography의 範圍

Bibliography

1. Physical (material)

a. descriptive	책의 外形을 통해 理想的 寫本을 鑑定해서 記述하는 것	板本學	Bowers	✕
b. comparative	比較	?	Wynar	✕
c. historical	個別圖書에 대해서 位置를 定하고 刊年을 確定하는 것	圖書史	Ferguson	✕
d. technical	技術	印刷技術史?	Wynar	✕
e. analytical	圖書의 物理的인 製作過程의 細分事項을 回生시키기 위해 實體的인 것을 對象으로 調査하는데 重點을 두는 것	板本學?	Bowers-Ferguson	✕
f. textual	原文과 後刷된 各板의 板(本)과 刷次를 통해서 傳來된 原文을 比較研究하는 것	校勘學	Bowers	✕
g. palaeography	獨立	古文書學	Stokes	+
h. papyrology	獨立	古寫本學	Stokes	+

2. Intellectual (enumerative or systematic) (以下는 筆者가 性格上合致될 수 있는 것을 모아 놓은 것임)

a. literary history	學術의 發展을 研究하고 著者의 意見을 討論하는 것	書史學	倪宅坤	×
b. annotated	그 篇目을 갈고 그 뜻을 쓰는 것	解題	劉向	/
c. abstract	內容의 要點을 提示하는 것(批評的인 抄錄)	提要	永瑯	÷
d. catalogue	所藏處와 藏書內容과 數를 밝혀놓은 것	書目學	Ferguson	×
e. classification	틀리는 것을 잘라놓고 같은 것을 한데 모아 놓은 것	分類學	Hexley	=
f. indexing	概念이나 辭句를 뽑아 項目을 만들어 一定한 方法에 依하여 排列하는 것	索引法	Collisor	✕

論을 支持하고 있는 傾向이 濃厚하다. 그러나 이것은 既述한 바와 같이 時代의 要求에 따라 bibliography의 語彙는 다른 意味를 內包하고 있지만 그 分科學問이 細分되었을 뿐이다. 여기서 東洋人들의 觀點은 어떠했는가. 文化의 席捲을 겪고 있었던 中國의 境遇는 어떠했는가. 이의 淵源을 살펴보는 것도 東洋의 觀點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一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筆者는 이것을 西洋學問이 中國에 들어오기 以前의 樣相과 對比해서 西洋에서의 bibliography가 中國에서는 如何한 性格의 學問으로 演變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中國在來의 目錄學과 bibliography

中國에서는 bibliography라는 말이 阿片戰爭以前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

다. 그 理由는 西洋文化중에서 특히 bibliography만은 淸國의 門戶가 開放되지 않았던 때이니만치 이는 自然趨勢로 通用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中国에서 西洋처럼 圖書에 관한 研究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西洋보다도 더 일찌기 關心을 두고 誠實히 研究했던 자취는 여러 面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論及하려고 하는 것은 中国에서 圖書를 対象으로 하는 研究가 어느 程度의 規範속에서 이루어졌는가의 問題일 뿐이다. 이 問題는 東洋에서의 bibliography의 概念을 推定해 내는데 매우 重要한 位置를 占할 것으로 생각된다.

筆者는 여기서 매우 장황하나마 中国 歷代의 芸文志와 經籍志를 一瞥해 봄으로써 여기서 西洋에서의 이른바 bibliography의인 性格을 지닌 것의 有無를 究明해 보고자 한다. 이 叙述은 問題의 核을 露出시키기 前에 그 淵源을 살펴보는 것이 先決問題로 생각된다. 우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目」이나 「錄」에 대한 始源까지를 遡及해야 할 일이지만 여기서는 西洋에서의 'bibliography'라는 概念과의 性格을 限定시켜 中国것과 對比하는 것이 焦點이므로 그 範圍를 일부러 넓히지 않고자 한다. 대충 對比될 수 있는 問題의 提起로서는 劉向·歆의 錄略作業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無妨할 것이다. 그것은 現存本으로 가장 오래것이 「漢書芸文志」이지만 그속에서 「七略」의 面貌를 어느程度 斟酌할 수 있는 記事가 散見되기 때문이다.

A. 阿片戰爭以前의 目錄學과 intellectual bibliography

「七略」은 本來 單純히 엮어진 것은 아니다. 그 動機를 살펴보면 孔子가 世上을 떠나자 精微要妙한 말이 끊겨지고 70弟子가 죽자 大義가 乖離되었으므로 그 後에 「春秋」를 左氏·公羊·穀梁·鄒氏·夾氏로 5분하고 「詩」를 毛氏·齊·魯·韓으로 四分하고 「易」에도 數家의 伝이 있었다.²²⁾ 이로 미루어 보면 西洋에 있어서의 classification은 中国에서는 벌써 春秋時代를 遡及되고 있었던 것이다. 西洋의 17世紀 云謂에 比하면 아득한 前代에

22) 班固撰, 顏師古注, 漢書芸文志, (中國目錄學名著第3集1冊, 臺北:世界書局, 民國53)總序 p. 1. 中國의 分類法은 七略·漢志가 分類編目的 創始이고 中經·新簿가 四部分類의 初創이며, 七志·七錄이 七略을 傳承하였고, 隋書經籍志와 古今書錄·旧新唐志·鄒鄒國志가 四部分類法을 確立했고, 通志芸文志와 鄭寅鄒氏書目·祠當書目·書目答問이 四部分類法을 傳承했다.

該當된다. 當時에 中國의 思想은 縱衡論에 대해 제각기 眞偽의 紛爭과 諸子의 殺雜이 紛然했고, 뒤에 秦에 이르러서는 焚書의 悲運까지 겪었지만 결국 漢에 이르러서는 典籍蒐集에 獻書의 일을 더 孝武帝時에는 밖으로는 太常·太史·博士의 藏과 안으로는 延閣·廣內·秘室의 府를 세우고 寫書官(Copyist)을 두고 諸子의 伝說에 이르기까지 筆寫시켜 秘府에 간직했던 史實이 있다.²³⁾ 이것을 보면 西洋에서 말하는 copyist가 bibliographer의 役割을 中國에서도 이미 했다. 좀 더 具體的으로 보면 成帝時의 일이다. 圖書가 辟 많이 散亡되어서 陳農이 “四方의 使者로 하여금 天下의 遺書를 求해 오라”²⁴⁾는 命令은 國家施策의 一聯의 文化政策이겠지만, 이에 따라 朝廷의 關心이 드늘자 成帝가 光祿大未 劉向을 불러 命을 내려서 劉向으로 하여금 「別錄」을 만드는데 經傳·諸子·詩賦를 校했다는 事實과 步兵校尉 任宏이 兵書를 校했고 太史令 尹咸이 數術(占卜)書를 校했고 侍醫 李柱國이 方技(醫藥)를 校했다²⁵⁾는 事實들은 역시 西洋에서의 textual bibliography의 用語가 나온 動機의 一面과 恰似한 點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劉向이 成帝의 命을 받들어 經傳·諸子·詩賦를 校할때 보는 책마다 곧 그것을 篇目해 놓고 그 뜻을 要約해서 王에게 일일히 책의 內容을 알렸다²⁶⁾는 事實은 그 業務面에서 볼 때 literary history나 annotated bibliography나 abstract의 性格과 一致되는 點이 다분히 있다. 따라서 劉向 등이 한 作業은 西洋初期의 bibliographer의 役割이 아니라 18世紀以後의 西洋에서의 이른바 bibliographer의 役割을 했으며 다만 中國에서는 이들에게 政府의 官職을 그 機能에 맞도록 붙여줬을 뿐이었다.

劉向이 죽은 뒤 哀帝가 다시 劉向의 아들 侍中奉東都尉 劉歆을 시켜 父業을 마치도록 한 것은 史書에 나와 이미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劉歆이 王命을 받들어 奏했던 「七略」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七略」을 들로 크게 나누어 区分했는데 첫머리에 실린 「輯略」은 여러 책의 要點을 綜合해서 記錄한 提要(abstract)格인 것으로 分類와는 關係없는 책의 體制속에 들 수 있는 內容의 解題인 것이다. 이러한 源流와는 달리 '六略'을

23) loc. cit.

24~28) Ibid. p. 2.

문 것이 보이는데 그것은 즉 六經을 모은 六芸略, 諸子百家的 思想을 모은 諸子略, 그리고 詩賦, 兵書, 數術, 方技略 등²⁷⁾이다. 이것은 學問의 性格을 分類해 놓은 것으로 分類學(classification)에 屬하는 한 學問이라 할 수 있다. 顏師古의 解說에 따르면 每略은 條와 家와 篇數가 記入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傳寫의 脫誤가 많아 알 수 없다²⁸⁾는 것이다. 어쨌든 劉歆의 父業을 繼承한 「七略」은 校讎와 提要와 編目과 分類의 樣相이 綜合된 이른바 中国在來의 目錄書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漢書藝文志」 自体이다. 「漢書藝文志」는 班固(32~92A.D.)의 撰으로서 中国 最早의 現存目錄으로서 內容은 劉歆의 「七略」 體制를 거의 본받은 책이다. 특히 그중에서 顯著한 面은 分類 樣相이다. 六芸·諸子·詩賦·兵書·數術·方技²⁹⁾ 등 六略은 劉歆의 「七略」 分類와 一致를 이루고 있고 다만 틀리는 것은 每略에 總序를 붙이고 每家 뒤에 小序를 붙인 點이 다를 뿐이다. 여기서 序라 함은 現代의 解釋에서의 책을 내게된 經緯의인 ‘머릿말’이 아니고, ‘先秦學術의 思想에 대한 源流와 그 演變된 事情’을 簡明하게 說明한 것이다. 여기서 「七略」 처럼 分類된 一面을 볼 수 있거니와 源流와 演變을 表示한 總序以外에 小序³⁰⁾가 있다. 이 小序는 西洋에서 말하는 abstract(提要)에 該當되는 것이다.

漢代에 著作된 「漢書藝文志」만 보더라도 各 略의 書目を 보면 例컨대 “易經十二篇, 施孟梁丘三家”라 하고 그 밑에 “師古曰, 上下經及十翼, 故

29) 漢書藝文志는 班固(32~92A. D.)의 撰으로서 六略, 38種, 596家, 13269卷으로 되어있다. 이 것의 初版은 「八史經籍志」에 根拠해 排印된 것으로서 歷代經籍志속에 들어가 있다. 「八史經籍志」는 本來 脫漏가 甚히 많아 이것을 사례로 고쳐 校補를 끝내고 新式 標點은 「新校漢書藝文志」가 있다. 清, 姚振宗의 「漢書藝文志拾補」는 散佚된 것을 모아 書目 317部를 만들어 書末에 붙인 것으로 先秦으로 부터 淸나라 中葉까지로 古代書目은 大体로 이 속에 包括되고 있다. (ibid. 新校漢書藝文志, 前語, p. 1.)

30) 本書에는 梁·陳·齊·周·隋 五代의 官私書目은 所載한 現存典籍으로서 經·史·子·集 4部 47類 14,466種, 89,666卷이다. 《長孫無忌等撰, 隋書經籍志(中国目錄學名著 第3集 1冊, 台北:世界學局, 民國53) 新校隋書經籍志 前語 p. 1》 目錄에는 3類가 있다. 1. 部類뒤에 小序가 있고 序名아래에 解題가 있는 것과 2. 小序가 있고 解題가 없는 것과 3. 小序도 解題도 없고 다만 書名만 있는 것이 即 이것이다. 《余嘉錫 著, 目錄學發微 (n. p; 藝文印書館, n. d.) p. 2. 目錄學之意義及其功用.

31) 班固 撰, 顏師古注, op. cit. p. 2. 六芸略 書目例.

十二篇”이라고 한 夾註까지 붙어있다.³¹⁾ 이를 보면 西洋에서의 catalogue (書目學)³²⁾의 形態도 있었고, note事項까지도 兼有했다.

그리고 索引法(indexing)에 관하여는 殷代에 벌써 있었으며 荀子の 名字起源을 밝히는데도 ‘弁同異’나 ‘同則同之’ ‘異則異之’의 句가 보이고 더욱 顯著한 것은 cross reference의 役割을 하는 祔承燦의 ‘通’ ‘互’ 法도 이미 이 明代에 있었던 것³³⁾이다.

以上은 대체로 漢代에 있어서의 西洋에서 이른바 intellectual bibliography에 該當되는 部分의 一斷面이거나와 이제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physical bibliography의 一面은 中國에는 없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B. 阿片戰爭以前的 目錄學과 physical bibliography

漢代以後 종이의 發明으로 서서히 伝搨과 摹寫에 관한 關心이 惹起되어 正確한 副本을 만들 뜻으로 漢나라 熹平時에 石經을 찍어와서 研究했던 史實은 史書에 나타나고 있다. 「後漢書 蔡邕傳」만 보더라도 石經을 보기 위하여 觀覽客과 摹寫客들이 乘車하고 온 數가 하루에 千余輛을 넘어 길을 메웠다³⁴⁾는 記錄이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中國에서 石刻이나 木刻 그리고 銅器, 陶器·磚瓦에 대하여 陰陽文字의 摹寫가 얼마나 되었을 것인가를 斟酌할 수 있다. (「隋書經籍志」를 보면 “後漢時代에 蔡邕의 七經을 쓴 글씨를 받아 石碑에 鐫刻했다”³⁵⁾는 記錄이 보이고, 隋의 開皇 6년에는 “鄴京으로부터 長安에 石經을 써서 秘書內省에 두고 洛陽을 遷都할 때의 물속에 빠뜨렸던 石經을 補緝하기 위하여 國學(大學)을 세웠다”³⁶⁾는 記事로 보아 政府公認의 原典을 石經에 새겨 넣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32) 詳細한 列挙(例: list·人名錄) 順序로 連續된 類似物 또는 關聯物(例: series) 등을 말함.

33)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台北 商務印書館, 民國54.) p. 18. 鄭恒雄, 中國索引發展史略 新時代, (台北: 國立圖書館, 民國44) p. 36.

34) 熹平 4년에 蔡邕은 五官中郎將 當奚谷典 光祿大夫 楊賜, 諫議大夫 馬日磾, 議郎 張馴 韓說, 太史令 單鳳 등과 함께 六經文字를 靈帝의 許諾을 받아 校訂해서 碑에 쓰고 刻工을 시켜 이를 새겨 大學門밖에 세우자 後儒 晚學 등이 모두 이를 取했다. 碑가 세워지자 그 때에 觀覽客과 摹寫者들이 길을 메운 史實이 적혀 있다. 《范曄撰, 賢註, 後漢書, 影印本(台北: 啓明書局, 民國 50) p. 378 下段, 蔡邕列傳, 第50下. 蔡邕傳》

35) 36) 羅錦堂, 歷代圖書板本學志要(國立歷史博物館, 歷史文物叢刊 第1輯, 台北: 中華叢書委員會, 民國 47) p. 19.

러한 것은 史書에 散見되거나와 揚雄을 비롯하여 鄭玄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이 原型을 살리려 不斷히 努力했으니 이러한 諸事例로 보아 寫本을 記述한 史實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혹 西洋에서 말하는 이른바 descriptive bibliography의 性格과 相似하지 않은가 한다. comparative bibliography와 technical bibliography라는 用語의 概念은 確實한 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그 事例를 中国에서 찾을 길이 없다. 또한 paleography와 papyrology는 이미 bibliography에서 獨立된 科學으로 分離되었으니 그것을 살필 必要는 없다. historical bibliography가 諸史의 藝文·經籍志의 卷序에 散見되고 特히 明史藝文志에 나타나는 個別圖書의 集散史와 그 來歷이 點錄되어 있다.³⁷⁾ 그리고 analytical bibliography는 「四庫簡明目錄標注」와 「宋元本行格表」³⁸⁾에서도 論及되어 있고, 특히 板本の 表示는 「遂初堂書目」³⁹⁾에 이미 記載되어 있다. textual bibliography는 劉向의 「別錄」을 說明하는 속에 이미 論及되어 있으니⁴⁰⁾ 再論을 避하고자 한다.

要컨대 上述한 바와 같이 西洋에서의 이른바 bibliography는 中国에도 이미 오래前에 그와 類似한 學問이 있었다고 하겠다. 다만 西洋에서는 論難은 있었으나 性格의 適宜與否를 莫論하고 bibliography라는 말로 學名이 굳어졌고, 그 아래에 性格別로 形質과 內容을 다루는 學問이 細分되어 있지만, 中国에서는 이와 같이 細分된 問題를 다루면서도 分科別로 獨立하여 다른 面은 最近에 와서의 現象이지만, 從前 換言하면 清代以前에는 이러한 學問들이 部門別로 獨立되어 各已 取扱하였다기보다는 歷代의 芸

37) 黃稷原 編, 王鴻緒, 張廷玉 等剛定, 明史藝文志(中國目錄學名著 第3集 7冊 台北:世界書局, 民國 52) 序 p. 2 ~ 5.

38) 屈万里·昌彼得 合著, 圖書板本學要略(台北:中華出版事業委員會, 民國 44) p. 95.

邵懿辰의 「四庫簡明目錄標注」는 卷首에 「瑞安孫詒讓仲容」 등 12.3名의 校勘者 姓名이 보이지만 周星詒, 何紹基 등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勞作人物의 相當數가 省略된 것 같다. 《喬衍瑄, 善本書의 價值(書目季刊, v. 1' 台北:書目季刊社, 民國 55) p. 17 下段》

39) 遂初堂書目은 光宗時에 編成되었으며 이는 特殊한 書目으로서 書가 1卷이 있을뿐, 小序와 籤錄은 없다. 다만 書名을 記入하고 著者의 姓名을 찍지어 書名뒤에 記錄할 뿐 卷數를 記入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간혹 註에 板本을 밝히고 있는데 같은 책이 다른 곳에 몇 部씩 取藏되어 있을 경우 版本이 틀리는 것은 미리 分別해서 記入하고 있다. 《昌彼得. op. cit. p. 156》

40) 註 23 參看

文·經籍志를 비롯하여 여러 文献이 한 圖書에 以上 敍述의 모든 學問을 綜合的으로 다룬 片貌가 나타난다.

C. 歷代 文献에 나타난 中国 目錄學書의 編成

中国 目錄學書의 編成은 阿片戰爭以前만 하더라도 그 數가 결코 적지 않았으며 결코 單純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性格面으로 볼때 相當히 多樣하며 各書가 獨立 性格을 지닌 것도 아닌듯하다. 그 实例를 歷代의 文献을 通해 그 一断面만을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形狀이 나타난다. 이를 性格別로 表示해 보고자 한다.

위의 表를 보면 대개의 圖書가 編次를 비롯해서 記述 및 校讎·板本·圖書史 및 書史學·提要·解題·著者名目錄·分類·編目·書目別로 거의 相互 聯關을 지으면서 當該圖書에 關하여 說明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形式을 中国에서는 어떻게 學名을 붙였는가 그 始源을 보면 中国古代에서는 이를 校讎學이라고 하였으며 清代에 와서 乾隆年間에 “目錄學”이라는 말을 붙이고 近代에 習用하고 있다. 그렇다고 校讎學時代의 圖書에 관한 研究가 校讎學에 그친 것은 물론 아니다. 또한 目錄學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概念을 가진 catalogue에 限定된 編成은 물론 아니다. 다만 西洋에서 마땅치는 않았지만 그러나 長久한 時日에 이미 굳어져버린 語彙의 bibliography처럼 中国에서도 校讎學이란 語彙보다는 ‘目錄學’으로 굳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中国在來의 目錄學은 마치 西洋에서 形質과 內容을 兼하고 있는 上位의 概念을 가진 bibliography와 같이한 듯하다.

IV. 結 言

以上은 bibliography라는 語彙의 範圍와 中国在來의 目錄學을 對比시켜 본 한 推測에 不過한 것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大略 다음과 같은 性格이 나타난다.

첫째, 始源을 보면 西洋에서는 圖書에 관한 研究가 18世紀에 그 機能이

그 前에 習用해 오던 ‘책을 轉寫한다’ 하는 것으로부터 ‘책을 對象으로 研究한다’는 뜻으로 變質되었지만 그 語彙 즉 16世紀에 불려오던 bibliography만은 이미 굳어져 習用되어 오늘에 傳해지고 있는 點.

둘째, 範圍로서는 圖書를 對象으로 研究는 하되, 形質面을 8個面⁴¹⁾으로, 內容面을 6個面⁴²⁾으로 各各 獨立시켜 보려고 한 點이 있는 反面에,

셋째, 中國에서는 阿片戰爭以前에는 ‘校讎學’이란 語彙가 있기는 했지만 ‘目錄學’이란 語彙가 이미 굳어져 버린듯 習用되고 있는 것은 마치 西洋에서의 bibliography와도 類似한 性格을 지녔고,

넷째, 對象面에서도 相似한 點이 있으나 한 圖書를 對象으로 研究할때 中國에서 相互聯関속에서 學術의 源流를 根幹으로 두고 條其篇目을 枝葉으로 삼는 中國的인 要素가 없지 않다.

41) 42) 表 1. 「bibliography의 範圍, 參看

Bibliography and the Conventional Chinese Catalogue
—Emphasis on the period prior to the Opium War—

Woo-choon Shim*

Usage and scope of the word Bibliography in comparison with in conventional Chinese Catalogue(中国 在来 目錄学)

(1) Usage of the word in connection with the study of books in the West has been changed from "writing of books" (17th century) to the meaning of "study of a book as an object"(18th century), and this meaning of the 18th century has been transmitted up to the present.

(2) In its scope, 14 branches(eight in physical aspect, six in content of books) were set up independently for the study of a book as an object.

On the other hand, the term Textual Bibliography(校讎学) was in use in China before the Opium War, however the word Catalogue(目錄学) has been a current word for the subject study as in the case of Bibliography in the West. And in the scope of study of a book as an object, although some of its aspect is somewhat similar to the Occidental Bibliography, the main stream of learning is reg-regarded as the root and the physical aspects as branches and lea leaves, thus the latter has been treated with less importance.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 Chung-Ang Univ.